

# 남북공동 표준안과 향후 전망

진 용 육 | E-mail:gsic@khu.ac.kr

강화대학교 교수/정보통신대학원장

글쓴이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코리안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ICCKLU)'에서 한국대표로서 또는 한국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남북한·중국의 여러 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전산용 자모순의 핵심 공동자 글쇠판 안의 마련, 전산 용어사전의 편찬과 부호계와 연구 방향에 대하여 완전히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합의안은 통일안이라기 보다는 권고 기준안이라기보다는 명확으로 불러야 한다. 비록 양국 정부대표들이지도 어려 가지 형태로 확실했지만 정부간의 합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 성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표준안을 반영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통일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학술회의는 50년 분단 상황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열렸으며 아마도 학술 분야에서는 유일한 경우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이 아닌民間 차원에서 학술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성사시킨 결과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하나의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며 봉일 이전에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를 가늠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중에서 전산 용어사전의 공동편찬, 전산용 자모순서, 자판 공동안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전산 용어사전의 공동편찬

ISO-2382의 정의에 근거하여 용어를 선정하고 항목 수 약 1,600여 개, 용어 수 약 2,10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일 용어안 약 85%, 복수 용어안 약 15% 정도로 합의하였다. 복수 용어의 경우도 남북의 현지한 차이만을 감안한 것이고 유사하다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control'은 우리에게 '제어'라고 굳어진 반면 북측에서는 '조정'이라고 굳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복수안으로 하였다. 그러나 'calculator'의 경우 우리 측의 '계산기'에 대해 북측에서 자신들이 계안한 '수산기(數算器 또는 手算機)'에 대한 복수 표기로도 하용하지 않아 결국 보류하고 차후에 토의끼로 한 용어들도 있었다.

당초 공동 용어집 출판이 1997년 5월까지 중국 등에서 공동출판을 회망하였으나 권고안 합의를 위해 예했던 북 측 하주의 사망과 양측 집필진의 사정 및 경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가 1999년에 최종으로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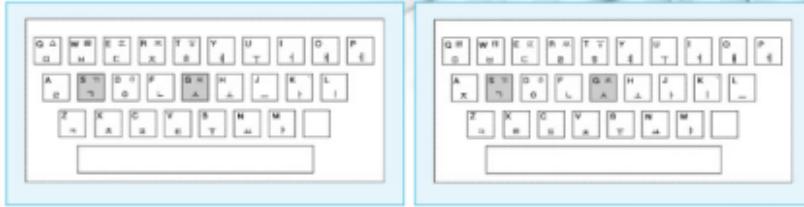
## 전산용 자모 순서

1996년 3차 회의에서는 우선 소회의를 먼저 구성하였다. 가장 단순한 범위를 다루지만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 : ㄱ, ㅋ, ㄴ, ㅌ, ㅍ, ㄷ, ㅂ, ㅠ, ㅃ, ㄸ, ㅉ, ㅎ,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① 북에서 'ㆁ'을 'ㅅ'으로 양보하였으며 ② 한국의 배열 순서인 ㅋ, ㅌ, ㅍ 등의 자모를 포함시켰음 ③ ㄲ, ㄸ, ㅃ, ㅆ, ㅉ을 맨 뒤에 배열하였으며 ④ 결과적으로 세 지역의 현행 어느 배열 순서도 따르지 않았으며 결묘하게 조화를 꾀한 암이 되었다.

모음 : ① 기본모음을 겹모음을 구분하여 배열하였으며 ② 기본모음의 배열순서는 3국이 동일함 ③ 겹모음의 배열순서는 한국의 배열순서와 동일하게 하였다.



(그림 1) 공동 자판 배치안

(그림 2) 조선 국규 9625/1993의 자판구조

남과 북의 자모순 배열에서의 차이는 '이용'의 위치와 쌍자음 및 겹모음을 순서가 다르다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 중에서도 '이용'의 경우 초성에서는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이용'의 뒤로 배치해야 한다는 북의 입장과 중성에서는 음가를 가지고 역사적 전통으로 보았을 때 시忤 다음에 배치해야 한다는 남쪽 입장이 서로 차이가 있어 왔다. 겹자음의 경우 '쌍기역'(북한에서는 된기역이라 한다)은 해당 여린소리 다음에 이어서 배치하는 것이 남한의 맞춤법 통일안이고 벤도의 기호로 보아 여린소리가 끝나는 다음부터 배열하는 것이 북한의 규범이었다. 이와 같은 배치가 사건의 윤월말 순서와 같은 언어의 규범을 제외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순서를 찾는다거나 순서 정렬과 같은 다른 전산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그러나 모든 언어규범을 통일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막대한 혼란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남북한 누구도 감히 통일을 원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하여 1995년 2차 대회부터는 언어규범의 전반적인 문야에 적용하기보다는 전산용 자모순에서는 이용을 시夙 다음에 놓은 것이 무엇보다도 돋보인다. 초성에 쓰이는 '이용'은 소리값이 없어 '이용' 다음에 배열해야 한다는 일관된 북의 주장으로 볼 때 매우 아래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중성에서는 소리값을 가진다는 엄연한 사실을 상기할 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 자판의 구조와 배치

자판 구조와 배치 구조는 2별식을 기준으로 26타건에 24개의 훌글자와 2개의 겹모음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옛글자 4자는 현대 글과는 별도로 처리되어

각각 해당 음가와 유사한 위치에 배치키로 하고 징자는 사용자 선택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힘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자판(통일보다는 공동안이란 표현을 쓰기로 하였다)의 자모 배치는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2개의 겹모음을 'ㅣ'와 'ㅔ'로 배치키로 합정적인 합의를 했지만 'ㅏ'나 'ㅓ'와 같이 다른 겹모음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다른 겹모음을 배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2개의 겹모음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다른 합리적인 배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현 벤도나 3겹 모음의 2타간 단축 타건(예를 들면 'ㅕ', 'ㅘ') 벤도에서 남북학자 어느 누구도 다른 겹모음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없었으며 앞으로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실질적으로 'ㅣ'와 'ㅔ'가 포함된 26개 타건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합의된 공동안은 1년쯤의 상호 평가 과정을 거쳐 1997년에 확정된 기준안을 만든 후에 각각의 표준기관에 제안하여 국내규격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즉 한국 표준 KSC 5715/1983과 북한의 국규 9625/1993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새로운 표준을 개정하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한글의 국제화를 위해서 국제표준 규격을 제안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면 어느 일방이 아닌 명실공히 한민족 공동 사용안이 확정될 것이다.

글쓴이는 새 천년 처음의 한글날을 맞아 공동안을 지원하는 자판을 설계하여 발표하고 북한에도 보낼 예정이다. 남북교류의 불고가 터진 이때 이 안이 실질적인 남북 통일안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